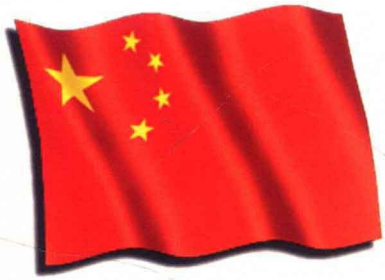
六祖法脉传海东

——中国六祖寺与韩国佛教界友好交流纪实

LIU ZU FA MAI CHUAN HAI DONG



六祖寺孫傳海東

——中国六祖寺与韩国佛教界友好交流纪实

常州大学图书馆
藏书章

目录 • CONTENTS

序 005–006

东奉法师的感悟

延和法师的感悟 007–022

第一章：引玉之机 025–032

第二章：中韩交流兴禅宗 033–078

第三章：远来祖寺求祖法 079–116

第四章：寿辰之日体禅机 117–124

第五章：一枝独秀话曹溪 125–132

第六章：沩仰曹洞又续焰 133—158

第七章：三传曹洞沩仰宗 159—172

第八章：法缘无尽行无尽 173—178

第九章：香港仁华结法缘 179—186

第十章：法席昌盛弘禅宗 187—198

第十一章：三访邻邦续焰传灯 199—266

第十二章：东奉来华贺寿祥 267—272

完结篇：慧灯无尽悲愿力 273—276

六祖偈句

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猶如求兔角

仲源敬錄

试读结束：需要全本请在线购买： www.ertongbook.com

六祖法脉传海东

——中国六祖寺与韩国佛教界友好交流纪实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顾　　问：大愿方丈

出　　品：广东四会六祖寺

策　　划：六祖寺文化办

责 任 编 辑：如珂法师

出 版 发 行：广东省四会市六祖寺文化办

装 帧 设 计：沐心斋™ 沐心&羽和【广州】

邮　　箱：jaer101@163.com （QQ:277478482）

开　　本：889*1194　1/16

版　　次：辛卯年八月十五日第一版

【 版 权 所 有　免 费 流 通 】

地　　址:广东省四会市贞山区六祖寺

电　　话：0758-3308303　0758-3309257

邮　　箱：fzrjbjb@163.com

网　　址：www.lzwhw.org

六祖寺·《六祖法脉傳海東》

LIU ZU FA MAI CHUAN HAI DONG

六祖法脉傳海東

——中国六祖寺与韩国佛教界友好交流纪实

序

千百年来，艰险与磨难成就的信心铸造了永恒。
铁鞋踏破，法躯难惜只因佛理的密意，只为灵山拈花的微笑……
千百年后，俯仰法脉支流，值遇邻邦，洞见曹溪一派，祖脉依然被见证不衰……
缘此，高僧出世，祖庭重光。

六祖——潜隐贞山，为法忘躯，游走尘寰。
于是，佛陀教法，弘化于怀会之间，于是，感得六祖禅寺横空出世于贞山的山气灵动，钟灵毓秀，幽谷清寂之处……

佛历二五五三、二五五四年，韩国戒子先后四次循迹曹洞、沩仰在贞山脚下的梵音缭绕之中，佛陀的优秀弟子、杰出使者——六祖禅寺方丈上大下愿法师续佛陀之法志，亲授法卷，使两宗法脉穿越国界，广传海东。

六祖寺

·《六祖法脉傳海東》·

LIU
ZU
FA
MAI
CHUAN
HAI
DONG

禅 의 香 馨

글 : 동봉(东奉)
(대한민국 흥천사 조실)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에 사회적으로 종교는 그 사회를 존속시키는 중요 집단의식을 강화하고 순화해왔던 것이다. 종교로서 불교도 긴 역사 속에서 많은 변용을 통해 지역성, 민족성에 따른 문화적 불교를 창출해냈다.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태국불교.....등으로 부르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명칭들이다. 불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의 전통과 문화에 어울리다 보면 그곳의 독특한 불교가 되곤 했었다. 상이한 불교 사상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불교" 라 한다.

왜 이처럼 다른 양상을 띠면서도 '불교' 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것이 불교의 특징이자 생명력이라고 본다.

그 생명력의 근저에 선불교문화의 전통이 있다. 각국의 불교 속에 흐르는 선맥의 전통은 각기 다른 양상의 불교를 온전히 불교라고 부르도록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그 선불교의 중심에 육조혜능대선사가 있다.

일찍이 한국불교는 육조대사의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 중흥을 이루었고 한국 선불교의 전통은 계계승승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육조대사의 고향에서보다도 더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선불교인지도 모른다.

본 선승은 평소 수행하면서 육조대사의 정신을 바로알기 위하여 육조대사의 선불교정신이 깃든 중국에 대하여 동경을 해보곤 했다.

그러다 중국에 육조사란 도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지를 한번 가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육조제를 봉행하는데 중국 육조사에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육조제 봉행위원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평소 육조대사의 선불교정신을 신봉하던 본 선승은 육조대사가 수행하던 곳에서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무척 고무되어 들뜬 기분으로 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다.

그 가운데 육조사에서 오신 대원방장큰스님의 온화한 미소에 다시 한번 합장했다. 세속나이로는 나 보다도 어린데 어디서 그런 성품이 뿜어져 나오는지 마치 육조대사를 친견하는 듯 !

试读结束：需要全本请在线购买： www.ertongbook.com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대원방장스님의 초청으로 중국 육조사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한 중국방문은 그야말로 성지순례로 이어져 동참한 스님들께는 살아있는 수행의 장이 되었고, 동행한 불자님들은 신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호남성 홍강구 숭운산 세계불교문화원 개원대법회 및 홍강구선불교문화축전에서 보여준 따뜻한 환대와 문화체험은 잊을 수가 없다. 숭운산에 펼쳐질 세계불교문화원에 한국의 불국사가 대표적으로 건립된다고 하니 다시한번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신 대원방장큰스님의 여법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중국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홍강의 고대 상가는 그 옛날 한국의 고승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불교문화의 배경을 마치 영상으로 찍은 듯하여 육조대사의 정신적 배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되었다.

아직도 유유히 흐르는 홍강의 물처럼, 선불교의 전통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태국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부처님의 법이 아니 미치는 곳이 없다 하시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부처님의 법은 하나이어라!

부처님 법 앞에 중국이 따로 있고, 한국이 따로 있고, 인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법 앞에는 오직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뿐이다.

국경을 초월하여 중국과 한국의 불제자들이 한데모여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자리야 말로 뜻 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 한국의 불제자들을 인연지어주고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인연 맺어주는 불교야 말로 세계 공통의 가치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홍강에서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광동성에 있는 육조사를 방문했다.

대원방장큰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육조대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유서 깊은 법도량이다.

광활한 대지위에 웅장하게 들어선 육조사!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고향에 온 듯한 포근한 기운이 감돌면서 언젠가 한번 왔던 곳인양 친근감이 들었다. 도량 곳곳에 대원방장스님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보이고, 의외로 소박하기 까지 한 육조사에서, 그 옛날 육조대사께서 수행을 하셨다는 유서 깊은 곳에서 그 선맥을 이어받는 법맥전수식이 봉행되었다.
참으로 가슴 떨리고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한국보다 기온이 높아 땀이 물 흐르듯 흘러내리지만 육조대사의 정신은 오롯이 전달되었고 대원방장스님의 인가로 육조제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함께 동행한 한국의 신도들은 육조사 신도로서 언제든지 육조사에서 기도정진할 수 있다는 수계를 받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간 흥천사 신도들은 대원방장큰스님을 친견하는 순간 마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는 듯했다며 관세음보살님이 환생하신 것으로 믿고 있다.
이쯤에서 육조대사의 정신이 무엇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보리본무수(菩提本无树)
명경역비대(明镜亦非台)
본래무일물(本来无一物)
하처야진애(何处惹尘埃)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요 거울 또한 거울이 아니라네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나랴."
육조사 곳곳에 육조혜능대사의 정신이 담겨있는 듯 하다.
육조대사의 어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나 붙이는 경이란 단어를 붙이고 "육조단경"이라 하여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풍광들이 육조사에 제현되었나니 과연 대원방장스님의 원력 또한 대단한지라 신심이 절로 우러났다.
이와 같은 대원방장스님의 원력은 육조대사의 법을 계승해 오고 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대원방장스님을 모시고 세계선불교문화교류를 위하여 연맹을 창립하니 이가 곧 "(사)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이다.
부처님 입멸 후 전 세계불교도들이 중국 광저우에 운집하나니 이는 육조대사의 법을 이어온 대원방장스님에 의하여 다시 한번 세계불교가 꽃피우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계일적수(曹溪一滴水)

육조의 선불교가 세월의 강을 건너 대원의 선불교로 다시금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뜻에 미력이나마 동참하게 되어 한량없이 기쁘다.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육조대사의 지리적 배경과 정신이 깃든 중국 육조사와 중국보다 더 한 육조선맥을 고수해오고 있는 한국의 육조 선맥이 다시금 인연지어 짐은 역사의 순리요, 부처님의 혜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중국과 한국은 물론 각 국의 선불교가 하나로 뭉쳐 불조의 혜명을 밝히는 일에 동참할 때다. 세계는 글로벌화되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종교의 역할은 불교의 선불교전통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육조사 대원방장스님과 한국의 깨어있는 납자들이 동참하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고귀한 가치요, 널리 세계에 홍포하여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육조사를 다녀온 뒤 본 선승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조령산 흥천사에도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 간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바람소리, 물소리, 구름이 조령산을 넘는 모습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게 되고, 삼라만상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짐을 세삼 느끼게 되었다.

본 선승의 일생일대에 대원방장스님을 만나게 됨은 부처님이 지어준 인연이요, 거스를 수 없는 홍강의 물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 뜻을 깨닫는 순간 연화장세계가 펼쳐지는 감격을 맛 볼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앞으로 육조사 대원방장스님을 모시고 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을 통하여 전 세계에 선불교문화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고자한다.

다시 조계일적수(曹溪一滴水).

중국선의 원류로서 육조설법은 아직도 생생하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불조 선맥은 육조에 이르러 융성하였고 다시금 되살아 난 선맥으로 하여금 중국과 대한민국의 불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의 향연을 펼치나니, 이제 곧 세계 선불교의 장이 도래함이라.바람이 움직인다,깃발이 움직인다'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마음 움직임의 중심에 육조사가 있고 그 중심에 대원방장큰스님이 주석하시다.

불기 2555년 初夏

대한민국 조령산 흥천사에서 동봉 합장

禅的香馨

文：东奉
（大忠寺最高委员、大韩民国兴天寺祖室）

什么是宗教？宗教在人类社会中起着非常重要的作用，宗教一直在强化并净化社会集体意识，而集体意识是让社会继续存留下去的重要精神。作为世界几大宗教之一，佛教在其漫长的历史发展过程中，通过很多的变通，创造了因地域性、民族性的不同而具有各自文化特色的佛教。比如印度佛教、中国佛教、韩国佛教、泰国佛教等等，都是在这样的背景下产生出来的名称。

佛法每到一个地域传播，就和该地区的传统和文化相互融合，成为该地区独特的佛教。可见，虽然不是完全相同的佛教思想，但是我们都称之为“佛教”。为什么具有不同的形式，却都要叫做“佛教”？这就是佛教的特点，同时也是佛教的生命力。

佛教的生命力的根源里有禅佛教文化的传统。各个国家的佛教中，都流着禅脉的传统，使不同国家的佛教都可以称之为佛教。禅佛教的中心人物有六祖惠能大禅师。

韩国佛教很早就受到六祖大师禅佛教的影响，而盛开禅之花，韩国禅佛教的传统代代相传，持续到今日。

本僧平时修行的时候，对渗透了六祖大师的禅佛教精神的中国非常向往。后来听到中国有个叫六祖寺的道场的消息，心中发愿定要朝拜圣地。正在这期间听到中国的六祖寺的一行人等将要访问韩国，在韩国举办六祖祭，我就作为奉行委员参与这个法会的准备工作。

本僧平时信奉禅佛教，听到从六祖大师修行之处将要来贵宾的消息，非常欢喜，因此以喜悦的心情举办了那次六祖祭。见到从中国六祖寺来的大愿大和尚，看到他温和的微笑，我再次合掌。从世俗的年龄来看，他比我小很多，却不知道从何处散发出如此的真性，仿佛亲见六祖大师！我感谢、再次感谢！由此因缘，后来应大愿方丈的邀请，正式访问了六祖寺。

那次的中国之行，有很多韩国法师和信徒参加，成为非常有意义的朝拜圣地之行。对参与活动的法师们来说是活着的修行，对信徒来说是觉醒信心的珍贵机会。

在湖南省洪江崇云山大兴禅寺举行的世界佛教文化院的奠基仪式和洪江禅文化节上，我们受到了盛情款待，并经历了独特的中华文化体验，至今记忆犹新。而且崇云山的世界佛教文化院里要建韩国的佛国寺，不得不让人坚信佛陀的法力。

再次感谢始终如一用温和的微笑迎接我们的大愿大和尚！一直保存着中国历史和传统文化的洪江古商城，如同古代韩国高僧从中国引进佛教文化为背景时拍摄的画面。让我们直接感受到六祖大师的精神背景。

就如同至今还潺潺流动的洪江的水，禅佛教的传统从印度到中国、韩国、日本、泰国……。谁能抵挡这个水流？这个世界没有佛陀的法照不到的地方，无论去世界的哪个角落，佛陀的法都是一个！在佛法面前，哪里有另外的中国，另外的韩国、印度？佛法之前只有相信佛法而跟随佛陀的弟子而已。

如今佛法超越了国境，韩国和中国的佛弟子，聚集一处共修佛法，真是很有意义。是佛教缔结了中国和韩国的佛弟子的因缘，同时也缔结了世界各国人们之间的因缘。佛教帮助人们确认了世界的共同价值。

结束了洪江的法会之后，我们访问了广东省四会市六祖寺，六祖寺是大愿大和尚继承了六祖大师精神的道场。

六祖寺就建在宽阔的山脚下。当我进入山门的时候，感觉有一种回到故乡的亲切气氛，而且有似曾相识的亲切感。我可以在寺院的各处感受到大愿方丈关注过的痕迹，有些地方的环境还非常古朴。就在六祖大师隐居多年的四会，举行了传接法脉的传法仪式。

传法仪式是充满欣喜和感动的瞬间。广东的气温比韩国高，让人汗流浃背，但是我们都接到六祖大师精神，通过大愿方丈的认可，我们成为六祖弟子。韩国的佛弟子也受了居士戒，成为大愿方丈的弟子，他们得到许可，任何时候都可以在六祖寺修行。

特别是韩国兴天寺的信徒们在接受大愿方丈传法的瞬间，如同见到观世音菩萨，他们坚信大愿大和尚是观世音菩萨的转世。

到了这个份儿上，看看什么是六祖大师的精神。

菩提本无树，明镜亦非台。

本来无一物，何处惹尘埃？

六祖寺的每个地方好像都有六祖惠能的精神。

六祖大师讲经说法的内容上添加“经”字，叫“六祖坛经”，传到至今。这个“六祖坛经”中的风光再现在六祖寺，可见大愿方丈的愿力也非同一般，也更坚定了我们的信心。是大愿方丈的愿力继承了六祖大师的法，我对此没有丝毫的疑问。

为了促进世界禅佛教文化交流，我们恭请大愿方丈成立联盟，名字是“世界禅佛教文化交流联盟”。

佛陀涅槃之后的今日，全世界佛教徒将在广东四会云集，就在六祖隐居之地——四会，在六祖寺大愿大和尚的法力下，将会盛开世界佛花。

曹溪一滴水

我看到了六祖的禅佛教，穿越岁月的江河，再次以大愿的禅佛教的形式化显，本僧有幸参与此历史洪流，感到无限欢喜。

韩国自古以来受中国文化的影响，同时也保持故有的文化和传统。中国六祖寺具有孕育六祖大师地理上的背景和精神，韩国自古以来一代代传下了六祖法脉，如今韩中六祖禅脉再次缔结在一起，不得不说是历史的法轮的周转，是佛陀的慈悲。如今是包括中国和韩国在内的世界各国的禅佛教融合为一，把佛祖的智慧光明照亮全世界。

当今世界通过全球化，成为一个地球村，引导世界精神文化的宗教应该起到其作用。在这一过程中，禅佛教将会承担起重任。

“世界禅佛教文化交流联盟”有中国六祖寺的大愿方丈，以及韩国觉醒的僧人和信徒，我相信这将是必须做的高贵事业，把佛的光明洒向世界，成为促进世界和平的契机。

本僧从中国的六祖寺回来之后，看到自己居住的大韩民国兴天寺周边的山上，绿荫浓浓，鲜花盛开。我感悟到平时没有注意到的风声、水声、漂浮的云彩各个都昭昭灵灵，感悟到三千世界皆为一体。

本僧见到大愿方丈是这一生中最重要的事情，是佛陀缔结的因

试读结束：需要全本请在线购买： www.ertongbook.com